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3.8.11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튀르키예, 이라크서 쿠르드노동자당 고위 간부 '암살'
 - 8.5 언론은 튀르키예 정보국이 이라크 북부에서 테러 조직원들에게 무기 및 탄약을 제공하는 쿠르드노동자당(PKK) 소속 고위급 간부 「일마즈 베이람」을 암살했다고 보도
- 스웨덴, 쿠란소각 가짜뉴스 퍼트린 배후로 러시아 지목
 - 8.7 언론은 스웨덴 국방부가 쿠란소각 시위와 관련해 가짜뉴스를 퍼트린 배후를 러시아로 지목하며, 이는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훼방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
 - ※ 7월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튀르키예 대통령이 스웨덴의 나토 가입 반대를 철회하면서 나토 합류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

미주

- 美, 최악의 반유대 혐오 총격범에게 바이든 정부 첫 '사형' 선고
 - 8.4 언론은 美 펜실베이니아주 연방법원이 지난 '18년 피츠버그 유대교회당에 난입 후 총기를 난사하여 1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「로버트 바워스(50세)」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보도
 - ※ 미국에서 발생한 반유대주의 공격 중 가장 많은 희생자를 발생시킨 역대 최악의 사건으로, 「바이든」 행정부 들어 美 연방법원이 최초로 사형 선고
- 美, '살인 예고도 테러로 처벌' 등 엄중 사법 체계 가동
 - 8.9 총기난사 사건이 끊이지 않는 미국에서는 범죄 위협, 테러 위협 거짓신고 등 공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종류의 행위에 대해 살인예비죄, 테러방지법 등을 적용해 무겁게 처벌하는 사법 체계 가동
 - ※ 미시간주 테러방지법은 18세 미만이라도 총기를 이용한 학교 내 위협 행위의 경우 성인과 같은 기준으로 기소 가능

아 · 태평양

- **韓 전문가, '홍기 난동' 예방을 위해 공동체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**
 - 8.6 언론은 전문가들이 이번 '묻지마 홍기 난동' 예방을 위해 정부기관 간 정보공유,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 구축, 예방 순찰 강화 및 자율방범대 등을 활용한 공동체 치안을 형성해야 한다고 보도
- **인도, ISIS 연계 테러리스트에게 '종신형' 선고**
 - 8.6 인도 법무부는 테러 공격 실행을 위해 인도 청소년 대상으로 테러단체를 선전·선동하다 구자라트 반테러부대에 의해 체포된 ISIS 연계 테러리스트 2명에게 '종신형' 선고
 - ※ ISIS 연계 테러리스트에게 급진화 된 4명의 미성년자가 증인으로 참석

중 동

- **예멘, 알카에다 아라비아 지부(AQAP)의 공격으로 정부군 2명 사망**
 - 8.7 언론은 예멘 남부 아비안 지역에서 예멘 정부군이 알카에다의 매복 공격을 받아 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쳤으며, 이는 최근 예멘 정부가 알카에다 아라비아 지부의 근거지를 겨냥한 대규모 작전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발생한 보복성 테러 공격이라고 보도

아프리카

- **나이지리아 정부군, 보코하람 근거지 소탕 작전 완수**
 - 8.7 언론은 나이지리아 정부군이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소탕 작전을 수행해 보르노주 지역에 위치한 보코하람의 근거지 여섯 곳을 파괴하고 테러리스트 11명을 사살, 4명은 생포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도

이집트 카이로, 국립 암연구소 인근에서 차량폭발 테러

- '19.8.4 이집트 카이로 소재 국립암연구소 근처 도로에서 폭발물을 적재한 차량이 다른 3대의 차량과 충돌한 뒤 폭발
 - ※ 이스라엘 정부는 同 테러로 “20명이 사망하고 47명이 부상당했다”고 발표
 - 내무부는 성명을 통해 “차가 잘못된 방향으로 운전하다가 반대쪽 3대 차량과 충돌해 국립암연구소 앞에서 사고가 났다”고 발표했으나
 - 국방부는 “차량 내부에 폭발물이 있었고, 충돌 후 폭발했다”며, “테러를 위해 차량을 옮기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”고 발표
- 이집트 대통령은 同 사건에 대해 ‘폭발테러 사건’이라는 언급과 함께, “테러단체 「무슬림형제단」 연계 세력의 자행”이라고 발표
 - ※ 同 사건은 ‘이집트 국민들의 테러에 대한 공포를 고조’시킨 사건으로 평가

< 무슬림형제단(MB) >

- (생성배경) 외세의 자원착취 및 이집트의 세속주의에 반발, 초등학교 교사 출신 「알 반니」가 정치·사회개혁 운동을 위해 결성
 - ※ 테러단체 지정 : 이집트('13.12), 사우디('14.2), UAE('14.11) 등
- (연계세력) 「하마스」 HAMAS
- (핵심인물) 무하마드 바디에(43년생)
- (활동지역) 이집트, 요르단, 시리아 등 중동 및 北아프리카 등
- (활동수법) 결성 초기 요인 암살 및 유흥시설 테러등을 자행하였으며, 구호·자선 기관 운영 등을 통해 무슬림들의 정치적 지지 획득에도 주력
- (주요특징)
 - '16년부터 「혁명여단」 「Hasm」 등 신생 테러단체 연계 정부요인 대상 테러 자행
 - 중도성향의 무슬림 포섭을 위해 텔레그램·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과격사상을 전파하며 집회·폭동 등을 선동

